



"복장이 따뜻하니까 생시가 꿈인 줄 안다"

뜻: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편안하게만 지내다 보니, 현실의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를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게 행동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안일함 · 현실 · 평안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복	장	이	↓	따	뜻	하	니	까		
생	시	가	↓	꿈	인	↓	줄	↓	안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복	장	이	↓	따	뜻	하	니	까		
생	시	가	↓	꿈	인	↓	줄	↓	안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바자오] [따뜻하니까] [사사기] [기오] [자] [오드]

웹에서 보기

